

## 외국인범죄자에 대한 경찰의 치안대책 : 경기도 수원시를 중심으로

### Police security measures for foreign criminals : Focusing on Suwon

Chanhyeok, Park,<sup>a,\*</sup> Bongsung, Seo<sup>b,</sup>

<sup>a</sup>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University of Dong-guk, Pil-dong 3-ga, Jung-gu, Seoul, 100-715, Republic of Korea*

<sup>b</sup> *Division of Police administration, University of Dong-guk, Pil-dong 3-ga, Jung-gu, Seoul, 100-715, Republic of Korea*

---

#### ABSTRACT

With recent news reports on violent crimes committed by foreigners, public hatred toward foreign criminals and fear about such crimes are growing, calling into question public safety measures implemented by the police and the immigration system. At the same time, due to globalization and structural changes in the labor market, it is certain that the influx of migrant workers will continue to increase. Against this backdrop, this paper seek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foreign nationals staying in Korea and their criminal records focusing on Suwon city, and propose public safety measures the police could take with regard to crimes committed by foreigners. Also, the paper looks into public safety measures of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and Suwon city, and suggests short- and long-term measures to prevent crimes committed by foreigners. The paper begins by examining the current public safety measures of the police and Suwon City concerning crimes committed by foreign nationals residing in Korea. Based on such examination, it points out insufficient patrol and investigation personnel as problems, and recommends short- and long-term measures for future improvement. This paper maintains that for the Korean society to successfully deal with the increasing number of foreigners in Korea, the current immigration system and public safety measures of the police will have to change. While the police alone cannot reduce the crime rates at local and national levels, nonetheless, proactive measures by the police are needed given the growing number of migrant workers and immigrants in Korea. Also important are mindset changes not only of relevant authorities, but also of the public. The paper recommends a set of short-and long-term public safety measures the police should institute to efficiently deal with crimes committed by foreigners.

---

#### KEYWORDS

crimes committed by foreigners  
public safety measures implemented by the police,  
immigration control  
illegal immigrants management on foreign nationals staying in Korea

---

최근 들어 외국인 강력범죄에 대한 언론보도로 인해 외국인범죄자에 대한 혐오증과 시민들의 범죄두려움이 증가하고 경찰의 치안대책과 외국인 출입국관리 정책이 불신을 받고 있다. 세계화 흐름과 국내 노동인구 시장의 구조변화로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늘어날

외국인범죄,  
경찰치안대책,  
출입국관리,

것은 명약관화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우리나라 체류외국인의 현황과 범죄 실태를 수원시 중심으로 살펴보고 외국인 범죄에 대한 경찰의 치안대책에 대한 제언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수원시 등 유관기관의 치안대책을 살펴보고 외국인 범죄예방을 위한 대책을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우선 우리나라 경찰이 진행 중인 외국인 범죄치안 대책을 살펴보았으며 수원시의 단속과 계획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부족한 단속 및 수사 인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개선방향을 살펴보았다. 앞으로 더욱 늘어날 외국인에 대한 우리사회의 올바른 대처는 적극적 변화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데 현재의 소극적 출입국 관리제도와 경찰의 대처는 분명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경찰의 단계에서 노력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민들의 비중이 커지는 만큼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처와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기관을 비롯한 시민들의 의식개혁과 더불어 경찰의 장·단기적인 치안대책 개선과 계획을 통해 효율적으로 외국인범죄에 대처해야 한다.

불법체류자,  
체류외국인관리

© 2015 Korea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All rights reserved

\* Corresponding author. Tel. 82-10-3627-1278.  
Email. pchpro82@naver.com

1 Tel. 82-10-3627-1278. Email. pchpro82@naver.com  
2 Tel. 82-10-3550-3336. Email. sbs502@hanmail.net

#### ARTICLE HISTORY

Received Dec. 09, 2015

Revised Dec. 15, 2015

Accepted Dec. 28, 2015

## 1. 서론

2014년 11월 수원시 팔달구에서 동거녀가 변심했다는 이유로 여성을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여 유기하는 엽기적인 살인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의 가해자는 범행 이후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집에서 부엌칼로 사체를 훼손하여 팔과 다리 등을 분리한 뒤 팔달산과 하천 주변에 버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사건의 가해자 박춘봉은 중국 연길 출신으로 2008년 위조한 여권으로 한국에 건너와 주로 수원에서 거주해 온 불법체류자로 확인되었다. 또한 2012년 4월 1일 자기 집 앞을 지나가던 한국여성을 납치하여 목졸라 살해하고 이 후 시신을 훼손하여 봉지에 담아 보관한 엽기적인 살인사건이 발생하여 피의자 우위안춘이 체포되었다. 그는 내몽골 자치구 선광촌에서 태어났으며 2007년 9월 취업비자로 한국에 건너와 경남 거제에서 노동일을 시작하였고 2010년 10월 부터 수원시에 정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오원춘은 무기징역판결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 명령을 받고 현재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이 판결은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우선시 했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았으며 우리 사회에 큰 논란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이처럼 2012년 3월 발생한 이른바 ‘오원춘토막살인사건’과 2014년 12월에 발생한 ‘박춘봉토막살해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의 범죄두려움이 급증하고 경찰의 치안활동에 대한 불신이 팽배를 초래하게 되었다. 또한 국내 체류외국인에 대한 관리와 경찰의 효율적인 치안대책 마련이 주요 화두로 떠올랐으며 대책마련이 매우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외국인 범죄에 대한 경찰의 치안대책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체류외국인 관리업무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외국인범죄 대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외국인 밀집지역인 수원시 팔달구를 중심으로 경찰과 출입국사무소 그리고 수원시(지자체)의 대책을 통해 효과적인 장·단기 대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글로벌 시대의 흐름속에서 우리나라도 다문화현상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와 같은 인력 수급은 필가피한 상황임은 분명해 보인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 경찰의 치안활동의 변화가 필요하듯이 다문화현상과 관련하여 외국인범죄에 대한 해결책도 다방면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지자체(수원시)의 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외국인 범죄 예방대책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국내 체류외국인 현황

2014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월보에 따르면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는 1,797,618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5%를 차지하고 있다<sup>19)</sup>. 이러한 수치는 2014년 광주광역시 등록인구 수<sup>20)</sup> 1,522,000명 보다 높은 수준으로 최근 10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Table 1> 체류외국인 연도별 증감추이를 살펴보면 2003년 등록외국인이 437,954명에서 2014년 12월 현재 1,091,531명으로 약 2.65배 증가하였으며, 단기체류외국인수도 2003년 218,426명에서 10년 동안 419,673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특히, 단기체류외국인도 2011년 이후 증가율이 급증하여 2014년 12월 현재 419,673명으로 파악되었다.

Table 1. Annual increase/decrease trend of the number of foreigners (Unit : person)

연 도	총 계	등 록	단기체류	거소신고
2006	910,149	631,219	249,542	29,388
2007	1,066,273	765,746	266,011	34,516
2008	1,158,866	854,007	263,402	41,457
2009	1,168,477	870,636	247,590	50,251
2010	1,261,415	918,917	258,673	83,825
2011	1,395,077	982,461	277,596	135,020
2012	1,445,103	932,983	324,504	187,616
2013	1,576,034	985,923	356,842	233,269
'14년 12월	1,797,618	1,091,531	419,673	286,414

출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19)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20)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자료

Table 2. Registered foreigners' residence distribution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21)	전북	전남
266,360	38,315	352,166	14,443	30,700	57,287	25,086	28,254
경북	경남	제주	울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47,805	77,778	14,204	25,885	25,203	55,323	17,064	15,658

<Table 2>등록외국인 거주지역별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 지역이 352,166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서울지역이 266,360명으로 두 번째로 높은 등록률을 보이고 있다. 반면 광주와 전남 그리고 전북지역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2.1. 인구대비 체류외국인 현황

Table 3. The number of foreigners by population (Unit : person)

연도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체류외국인	1,168,477	1,261,415	1,395,077	1,445,103	1,576,034
인 구	49,773,145	50,515,666	50,734,284	50,948,272	50,219,669
인구대비 체류외국인비율	2.35%	2.50%	2.75%	2.84%	3.14%

출처: 2013년 법무부 출입국 통계연보, 278면

<Table 3>를 살펴보면 2013년 말 기준 국내체류 등록외국인은 1,576,034명으로 2012년 1,445,103명보다 130,931명 증가하여 9.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국적별로 중국이 778,113명으로 49%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두 번째로는 미국이 134,711명으로 8.5%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밖에도 베트남 120,069명으로 7.6%, 일본 56,081명으로 3.6% 순으로 나타났으며, 필리핀 3.0%, 타이 3.5%, 인도네시아 2.6%, 우즈베키스탄 2.4%, 캄보디아 2.0% 그리고 기타 13.4%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2-2. 최근 10년간 외국인 범죄 유형별 현황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강간과 폭력의 경우 2014년 기준 강간발생건수는 535건으로 전년 대비 36건이나 증가하였으며, 폭력은 9,013건으로 전년 대비 675건이나 증가하여 최근 10년의 발생추이를 살펴보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절도범죄도 2005년 821건에서 2009년에는 1,800건을 넘겼으며 2014년 기준 최다발생범죄는 폭력범죄이며 8,338건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두 번째는 교통범죄가 5,769건으로 높은비율을 나타냈다.

Table 6. Type of crimes by foreigners in 5 year (Unit : person)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지능	마약	도박	교통	기타
2009년	21,235	86	228	165	1,805	5,084	3,397	760	1,723	1,594	6,393
2010년	19,445	82	191	238	1,581	5,533	2,407	689	1,151	3,609	3,964
2011년	25,507	94	143	305	1,643	7,573	2,466	216	2,874	5,256	4,937
2012년	22,914	84	141	348	1,554	8,073	2,231	221	905	4,673	4,684
2013년	24,984	73	104	499	1,743	8,338	2,299	200	699	5,769	5,260

\* 출처: 경찰청 내부자료

21) 세종특별자치시 2,719 포함

### 3. 경기도 체류외국인 실태 및 현황

#### 3.1 수원시 외국인 일반 현황 (2014. 12. 18. 현재)

<표 3-1>의 2014년 12월 말 기준으로 수원시 체류외국인 현황을 살펴보면 총 4개의 구역에 30,352명이 거주하고 이 중 팔달구가 가장 많은 11,702명의 체류외국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권선구가 6,869명, 영통구 6,525명 그리고 장안구 5,256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들이 가장 많았으며 특히 한국계 중국인이 18,476명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다음 순으로 베트남이 1,210명으로 중국계를 제외한 국가 중 2번째로 많은 체류외국인이 거주하며, 미국이 485명으로 필리핀과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캄보디아 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Table 3-1. Foreigners' residence by regions in Suwon (2014)

국적 지역	계	중국	한국계 중국인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미국	기타
권선구	6,869	935	4,783	363	111	24	50	57	50	496
영통구	6,525	1,429	1,641	327	71	44	66	61	268	2,618
장안구	5,256	1,185	2,773	342	50	7	17	13	81	788
팔달구	11,702	1,474	9,279	178	40	11	35	8	86	591
합계	30,352	5,023	18,476	1,210	272	86	168	139	485	4,493

\* 출처: 경찰청 내부자료

<표 3-2> 수원시 전체 체류외국인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총 46,019명이고 이 중 조선족이 32,787명으로 71.25%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총 불법체류자 수는 7,478명으로 16.25%이며 조선족 불법체류자는 5,148명으로 전체 불법체류자 수의 15.7%이며, 한족은 1,250명으로 22.45%의 불법체류 비율을 보이고 있다.

Table 3-2. Total number of foreigners living in Suwon (2013)

구분	총원	조선족	한족	기타국적
경기도 수원시 전체	46,019명	32,787	5,56	7,666
체류비율	100%	71.25%	12.10%	16.65%
불법체류자수	7,478명	5,148	1,250	1,080
불법체류자비율	16.25%	15.7%	22.45%	14.08%

\* 출처: 경찰청 내부자료

<표 3-3>의 수원시 팔달구에 체류 중인 외국인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총 18,389명 중에 조선족이 15,723명으로 가장 많고 한족이 1,617명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이 중 불법체류자 수는 총 780명이고 조선족이 476명이며 한족이 184명으로 등록 외국인과 비례하여 불법체류자 수가 구성됨을 알 수 있다.

Table 3-3. Total number of foreigners living in Paldal-gu Suwon (2013년)

구분	총원	조선족	한족	기타국적
수원시 팔달구 전체	18,389	15,723	1,617	1,049
불법체류자수	780	476	184	120
불법체류자비율	4.24%	3.03%	11.38%	11.44%

\* 출처: 경찰청 내부자료

<표 3-4> 수원시 팔달구 지동의 체류외국인 현황을 보면 총 2,757명이 등록되어 고등동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등록률을 보이고 있다. 이중 불법체류자수는 조선족이 66명, 한족이 25명 그리고 기타국적이 75명으로 총166명이다.

Table 3-4. Total number of foreigners living in ji-dong Paldal-gu Suwon (2013)

구 분	총 원	조선족	한 족	기타국적
수원시 팔달구 지동	2,757	2,163	199	395
불법체류자수	166	66	25	75
불법체류자비율	6.02%	3.05%	12.56%	18.99%

\* 출처: 경찰청 내부자료

<표 3-5>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의 체류외국인 현황을 살펴보면 총 18,389명으로 팔달구에서 가장 많은 체류등록 외국인이 거주하는 곳이며 이중 불법체류자수는 780명이다. 이처럼 수원시 팔달구 전체의 체류외국인 등록비율과 불법체류자비율은 우리나라 전체 체류외국인 비율 3.57%보다 높은 수준을 보인다<sup>22)</sup>.

Table 3-5. Total number of foreigners living in godueogn-dong Paldal-gu Suwon (2013년)

구 분	총 원	조선족	한 족	기타국적
수원시 팔달구 전체	18,389	15,723	1,617	1,049
불법체류자수	780	476	184	120
불법체류자비율	23.6%	33%	8.8%	8.7%

\* 출처: 경찰청 내부자료

<그림 3-6>를 보면 최근 4년간 경기도 내에 발생한 외국인범죄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며 증가하는 등록체류외국인 수를 감안하면 더욱 빠른 속도로 감소하는 있는 추세로 해석할 수 있다. 자세한 수치를 살펴보면 2011년 총 발생건수가 8,504건에서 2014년에 5,572건으로 감소하였으며 살인을 비롯한 강도, 강간, 절도 그리고 폭력을 포함한 주요범죄의 발생건수가 감소하였다.

Table 3-6. Crime by foreigners in Gyeonggi-do for recent 4 year (Unit: person)

	계(명)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마약류	지능범	기타 <sup>23)</sup>
'11년	8,504	45	40	95	487	2,930	82	1,023	3,802
'12년	7,766	27	73	99	479	3,034	79	809	3,172
'13년	8,689	23	24	144	555	3,195	84	957	3,707
'14년	5,572	11	26	69	349	1,778	46	626	2,667

\* 출처: 경찰청 내부자료

<표 3-7>는 최근 4년간 수원시 전체 외국인피의자 현황과 5대 강력범죄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현황에 대한 변화를 나타낸다. 2010년 수원의 3개 경찰서 피의자 현황은 634명이고, 2011년 704명이고, 2012년 685명, 2013년 1,082명으로 증가 추세를 알 수 있다. 경찰서별 피의자 현황을 보면 2010년에 2014년까지 서부경찰서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서부경찰서의 관할지역은 권선구 일부지역과 팔달구 일부지역이 포함이 되는데 팔달구에는 고등동과 매산동 매교동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지역은 외국인 많이 거주하며 유흥가 밀집지역으로 치안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로 인한 범죄발생건수가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폭력 범죄의 경우, 서부경찰서는 2010년에 나머지 두 지역에 비해 2배 가까운 수치를 보인다. 2011년에는 164건으로 중부경찰서의 56명과 남부경찰서의 93명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나타내며, 2012년에도 174명으로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 2013년 폭력범죄로 인한 피의자 수는 200명을 넘었으며 2014년에는 272명으로 엄청난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22)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연보(2014)

23) 기타범죄 : 출입국관리법, 식품위생법, 외국환거래법, 결혼중개업법 등

Table 3-7. Crime by foreigners in Suwon for recent 4 year (Unit: person)

연도	관서별	총계	5대 강력범죄					기타 <sup>24)</sup>
			계	살인	강도	강간추행	절도	
2010년	수원 중부경찰서	155	70	0	0	0	12	58
	수원 남부경찰서	235	75	0	0	3	14	58
	수원 서부경찰서	244	125	2	3	5	13	102
2011년	수원 중부경찰서	157	80	4	2	2	16	56
	수원 남부경찰서	215	105	2	0	2	8	93
	수원 서부경찰서	332	184	2	2	6	10	164
2012년	수원 중부경찰서	151	76	2	0	3	19	52
	수원 남부경찰서	188	94	1	0	4	15	74
	수원 서부경찰서	346	197	0	3	8	12	174
2013년	수원 중부경찰서	195	89	0	0	1	18	70
	수원 남부경찰서	209	116	0	0	2	23	91
	수원 서부경찰서	387	237	0	1	10	26	200
2014년	수원 중부경찰서	230	80	0	0	3	15	62
	수원 남부경찰서	315	118	0	2	3	29	84
	수원 서부경찰서	537	311	1	4	9	25	272

#### 4. 최근 5년간 경기경찰청 외사경찰 인력현황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의 내부자료에 따르면 2014년 외사인력은 141명으로 2013년 140명 과 거의 비슷한 수치이며, 2010년 157명과 비교하여 다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범죄는 수치상으로 감소하지만 전반적인 체류외국인의 수가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외사과 인원은 전문인력을 보충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Table 4-1. The number of police in foreign affairs in Gyeonggi Provincial Police Agency (Unit: person)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8월
외사인력	157명	155명	156명	140명	141명

\* 출처: 경찰청 내부자료

#### 4. 현재 우리나라 경찰의 외국인범죄 치안 대책 현황

##### 4.1 우리나라 경찰의 외국인범죄 치안 현황

##### 4.1.1 경찰청 국제 범죄수사대 확대 설치 및 인력보강

경찰청에서는 외국인 범죄 근절을 위해 국제 범죄수사대를 설치·운영하여 외사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2014년 12월에 주요 외국인 밀집지역을 「치안안전구역」으로 선정하여 4대 사회악, 불법 입출국, 외국인 동네조폭 등 외국인 범죄를

24) 기타범죄 : 출입국관리법, 식품위생법, 외국환거래법, 결혼중개업법 등

근절하고자 시의성 있는 집중단속을 지속 전개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는 영등포구 대림동, 구로구 가리봉, 용산구 이태원동 3개 지역이며 경기도는 안산시 단원구, 시흥시 정왕동, 수원시 매산동이며 인천광역시 석남동, 부산광역시 장림동, 그리고 대구광역시 삼덕동으로 총 5개 경찰청의 9개소를 치안안전구역으로 선정하여 집중 단속중이다.

#### 4.1.2 연말연시 전국 외국인 밀집지역 특별방범활동 실시

연말연시 전국 외국인 밀집지역에 지역경찰·기동대 등을 동원하여 「특별방범활동」을 실시하고, 경찰서별 외국인 범죄 빈발지역에 전담형사팀을 지정하여 가시적인 형사활동을 통해 외국인 범죄 분위기 제압에 경주하고 있다.

#### 4.1.3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기초 범질서 교육 실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기초 범질서교육, 다문화가정에 대한 가정·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범죄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외국인 밀집지역 내 CCTV 확대설치하여 방범환경 개선에 노력해가고 있다.

#### 4.1.4 외국인 협력치안 및 범죄예방 교육 활성화

외국인 밀집지역 관할 경찰서에 외사계 신설 및 지방청 국제범죄수사대 확대 설치·전문화하는 등 전담인력을 보강한다. 법무부와 협력하여 외국인 지문정보 공유 등 치안정보관리시스템을 보완하여 외국인 범죄대응력 강화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4.2 수원시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범죄 대책

#### 4.2.1 단계별 계도 및 단속계획안

##### (1) 1단계 : 정보·첩보 수집 및 상시 순찰

우선 정보·첩보 수집 및 상시 순찰 실시를 2015년 1월 12일 부터 2015년 6월 30일 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안면인식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수원시 팔달구 지동과 고등동에 등록된 외국인을 대상으로 위명, 위·변조 여권을 소지하여 입국하는 사람을 인천공항 감식과와 협업하여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숙박협회, 요식업 협회, 상가번영회, 부동산중개인 협의회 관계자, 통·반장, 자율방범대 등 조직과 상시 접촉하여 불법체류자 집단거주지에 대한 정보·첩보 수집할 계획이다. 이 업무는 수원시 팔달구청의 협조를 받아 지동과 고등동의 통·반장 그리고 유관 단체 연락처 확보하여 상시 연락체제 구축함으로써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불법체류 외국인의 생존기반인 직업소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취업 알선 시 출입국관리법 위반임을 적극 계도하는 업무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취업알선 대상자의 체류자격 안내를 팔달구청 지역경제과로부터 팔달구청에 등록된 직업소개소 명단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청 외사담당자, 수원시청 및 팔달구청 등 관계기관 외사업무 담당자와 상시 모임을 활성화하여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정보와 첩보를 공유하고 간담회도 유사시 개최예정이다.

수원시 출입국관리사무소 자체적으로 주 2회에 걸쳐 직원 2인 1팀으로 외국인 밀집 우범지역에 대해 사무소 순찰차를 이용하여 주·야간 순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법무부 순찰차로 순찰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우범지역 체류 외국인들에게 준법의식 고취 및 외국인 동향조사 첩보 수집을 실시할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 밀집 우범지역에 대한 거주지 전수조사 실시하여 통·반장의 협조를 얻어 수원시 팔달구에 주소지를 둔 등록외국인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실제 거주여부 및 동거인 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다. 조사가능 인력 한계를 고려하여 특정지역(팔달구 고등동 : 박춘봉 사건 발생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필요시 유관기관과의 공조 조사활동을 계획 중이다.

이러한 외국인 거주지 전수조사를 통해 체류지 불성실 신고외국인들을 적발하고 이를 엄정 처벌함으로써 외국인들에게 정확한 체류지 신고 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으며 인근지역 외국인들에게도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밀집 우범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현지 거주외국인 및 임대인, 숙박업소 업주들과 일반 시민들에 대한 안전체감도 상승을 유도할 계획이다.

##### (2) 2단계 : 집중단속 (15.02.02~15.06.30)

유관기관 합동 단속실시를 월1회 실시하여 수집한 첩보를 바탕으로 수도권 사무소 및 경기지방경찰청과 공조하여 외국인

밀집 우범지역에 대한 주·야간시간대 불심검문을 통한 불법체류자 단속 실시할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였다. 뿐만 아니라 주 1회 자체단속을 위해 상시 순찰 활동을 실시하고 수집한 첩보 및 민원제보 전화 등을 토대로 범법 외국인 거주지에 대한 자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집단거주 지역일 경우 필요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를 포함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외국인 밀집 우범지역에 위치한 인력사무소도 집중단속 대상이다. 불법체류외국인들의 대다수가 인력사무소를 통한 취업활동으로 생계를 유지해나가는 상황을 고려하여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주 수입경로를 원천 차단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단속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고 이로 인해 해당지역의 슬럼화 방지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 외국인 우범지역 순찰 분소 설치(임시운영)

외국인 밀집 우범지역이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수원시 영통구)에서 멀리 떨어진 수원역 인근에 형성되어 있어 급박한 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 불가능함 따라서, 외국인 밀집 우범지역에 임시적으로 약 3~6개월 간 순찰분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계획중에 있다.

## 5. 외국인범죄에 대한 경찰의 치안대책 강화방안

### 5.1 경찰청의 단기 개선방안

#### 5.1.1 외사 경찰의 인원 보강 및 전문성 강화

외사경찰은 전체 경찰의 1.1%수준(1086명)<sup>25)</sup>으로 1인당 외국인 담당비율이 1,340명으로 근본적인 수사인력확보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외사과는 보안과 내에 설치하여 외사업무를 담당하는데 경찰서에 보안과가 없거나 있어도 인원이 1~2명에 불과하거나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 있어 전문성도 낮은 편이다. 따라서 외국인범죄 핫스팟을 중심으로 지방청에 적정수준 단위의 외사과를 설치하고 규제 체류 외국인 200만 시대를 맞이하여 외사경찰 채용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언어와 교육 훈련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평소에 외국인들 사이에 문화를 이해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5.1.2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조 관계 구축

일본의 경우 법무성, 노동성, 경찰합동기구가 불법체류자 대책마련과 관련하여 관계국장들이 연계회의를 실시하여 효과를 본 사례가 있다. 우리나라도 외국인범죄와 관련된 부처 간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검찰청, 경찰청, 국정원, 관세청,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교통상부 등 관련기관이 지문채취, 범죄경력 등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여 관련기관의 원활한 공조와 부처 간의 정보교환과 범죄에 대한 공동대처를 위한 '상설협의체'를 신설이 필요하다. 외국인관련 국제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은 조직과 인력의 한계로 인하여 적극적인 수사활동을 펼치지 못하고 있으며 국정원은 국제범죄와 외국인범죄자에 관한 정보수집활동을 하고 있으나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경찰은 방대한 조직과 인력으로 수사의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피의자를 송치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 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이러한 외국인범죄의 수사와 관련하여 그 체계와 시스템을 정비가 필요하다<sup>26)</sup>. 이렇듯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그리고 경찰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꾸준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밀집도·범죄율이 자치구역 내에서 가장 높은 구역을 선정하여 집중관리하던 '외사치안안전구역'을 재정의하고 주말과 심야시간 그리고 취약시간대를 분석하여 국제범죄수사대와 경찰관기동대가 합동근무를 실시하는 등의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경찰의 단속만으로 범죄해결과 억제에 한계를 나타내므로 외국인에 대한 정보수집과 제공을 외국인정책본부에서 협조하며, 단속과 관리를 실시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자세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 5.1.2 외국인 강력범죄자에 대한 관리 강화

외국 국적의 범죄자 또는 전과자에 대한 실제 거주지 또는 거소 파악을 비롯하여 동거자 존재여부와 범죄경력에 대한 정보를

25) 경찰청, 2012 경찰백서, 281면

26) 김태명(2007), 일본의 외국인범죄 실태와 대책, 경찰학논총, 2(2)

데이터화하여 보관하며 이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외국인을 통한 외국인범죄 예방법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외국인 중 귀화한 자를 경찰관으로 특별채용하여 동일국적이나 인종이 많은 밀집지역에 배치하여 불법체류단속 속에 투입하거나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 또한 외국인범죄사건 수사에 참여시키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들은 자신들의 모국과 한국의 문화, 풍속, 관습, 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국민들에 대한 첩보수집의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자국민 피의자들의 진술에 대한 정확한 대변 및 외국인 수사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외교적 마찰과 인권문제에 효과적인 예방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외국인들에게 친숙한 이미지로 대민서비스가 가능한 분야에 외국인 채용자를 적극 배치함으로써 체류외국인과의 소통을 유도하고 유사 시 사건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체류외국인들로 하여금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참여시켜 스스로 구성원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변화를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소극적으로 진행중인 외국인 자율방범대, 외국인 치안봉사단 등의 제도를 확대 보급해야 한다. 범죄예방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들에게 관심을 갖도록 함으로써 스스로 범죄를 억제하도록 하는 것인데 모든 외국인이 스스로 참여하고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소외되거나 고립된 생활에서 벗어나 자치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 5.2 경찰청의 장기 개선방안

### 5.2.1 외국인에 대한 편견 불식을 위한 조기교육 실시

오원춘과 박춘봉사건으로 인해 일반시민들 사이에 외국인 혐오증상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외국인, 그중에서 불법체류자들은 범죄의 온상일까? 실제 범죄 통계는 그렇지 않다. 외국인보다 내국인 범죄율이 오히려 높다. 외국인 중에서도 합법체류자보다는 불법체류자의 범죄율이 더 낮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0년 1년간 한국에서는 총 178만4953건의 범죄가 일어났다. 이를 통계청의 인구 추산 4976만여 명에 대입하면 전 국민 중 범죄자 비율은 평균 3.58%가 나온다. 대검찰청의 '2014 범죄분석' 자료와 출입국사무소의 '2013년 체류외국인 통계', 법무부의 '2013년 대한민국 주민등록 인구'를 분석한 결과, 내국인 범죄율은 4.14%인데 비해 외국인 범죄율은 1.94%로 나타나 내국인 범죄율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쳤다. 물론 몇몇 강력사건들이 발생하여 시민들의 체감 안전도와 범죄두려움을 높이는 원인임은 분명하지만 잘못된 분위기 확산과 막연한 공포심이 퍼지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외되거나 무시하는 등의 외국인에 대한 차가운 시선과 냉대는 그들을 더욱 움츠리게 만들고 극단적 선택을 야기함으로써 같은 지역사회 속의 주인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따뜻한 시선과 평등한 대우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외국인 범죄와 관련 예방대책을 마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장기적으로 사회통합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사회의 기성세대들의 인식전환도 요구되며 가정에서도 체류외국인과 이주민들의 2세에 대한 잘못된 시선은 바로잡기 위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강력한 단일 민족주의 의식을 타파하고 이주민과 그들의 2세들을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주인의식을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범죄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잠재적 범죄자에게 그들의 범행의도를 제거하는 것처럼 외국인들에게 더 이상 외국인이라고 호명하는 것부터 고치려는 인고의 자세가 요구될 때이다.

### 5.2.2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증진 프로그램 실시

사회통합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첫번째 방법으로 지역 주민들과의 유대의식 증대 및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동두천 크리스마스트리 평화마당'과 '김해 세계 크리스마스 문화축제' 그리고 '외국인 명예경찰 방법활동'은 이미 호의적인 평가와 지역사회 체류외국인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김해시는 거주하는 이주민들과 시민간의 화합이 구도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지역상인과 시민단체 그리고 이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인한 행사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고 주목받게 되었다<sup>27)</sup>. 뿐만아니라 동두천시의 중앙로에서 진행되는 크리스마스 평화마당 축제는 원도심의 활성화와 한미간의 우호증진을 비롯한 다민족 세계평화의 목적이라는 큰 뜻으로 개최되어 많은 관심을 받았다. 외국인노동자 또는 이주민 그리고 그들의 2세들에게 이방인 취급을 하는 것은 적대감을 형성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사회 실정에 어울리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해야 할 것이다.

27) sbs뉴스기사,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710216>, 검색일. 2015.01.21.

### 5.2.3 출입국관리 방법의 개혁

국내 거주하는 체류외국인들과 앞으로 유입될 것을 고려하여 새로운 체류카드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주요내용으로 외국인에 대한 지문등록의무화, 얼굴정보 공개, 범죄경력 조회 의무화 등을 데이터화하여 관련기관이 철저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일단 국내로 유입되면 거주자나 거소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지역사회 입장에서 관리의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장기적인 입장에서 그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경찰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외국인들의 경우 대부분은 우리나라에 대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주하거나 체류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보호하고 관리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정기적 체류외국인에 대한 범죄예방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국제화와 산업체 인력부족으로 인한 외국인근로자의 유입이 증가한다는 것은 분명해보인다. 따라서 출입국관리에 대한 장기적이고 차별화된 계획을 세워야 한다.

## 6. 결론

세계화로 인한 이주민과 체류외국인 그리고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정책은 경찰의 고유업무와 다소 거리가 있지만 특정지역의 치안상황과 국가 전반의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활동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범죄 두려움이 낮아지면 검거율과 무관하게 치안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진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이미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 범죄를 감소를 위한 노력만큼이나 시민들이 느끼는 범죄두려움을 낮추는 지역사회 경찰활동도 필요하다.

때문에 수원시의 경우 이러한 효과를 고려하여 지역의 상황에 맞는 탄력적인 경찰활동과 지역사회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발생한 몇몇 사건은 국민들의 관심을 통해 지역사회의 불안감을 조성하였으며 경찰과 관계기관의 질타로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해당 지자체인 수원시도 시민들의 차가운 시선과 체류외국인 관리에 대한 불신으로 부터 벗어나지 못하였다.

특히 수원지역은 주요 외국인 밀집지역 중 한곳에 해당하며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불법체류자의 집터거주지역이다. 최근 몇몇 사건들로 인해 지역사회가 분열되고 지역주민과 이주민간의 관계악화로 여러 가지 사회갈등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인 범죄에 대한 자국민 보호는 당연한 경찰의 임무이자 목표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권리보호와 그들의 생활권을 보장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되는 외국인 범죄 대책과 관리방안에 대한 문제점과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제언을 하였다.

우선 외국인 범죄에 대한 우리경찰의 치안대책을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였으며 단기 개선 방안중에서의 첫번째는 우리 경찰의 전담인력과 관련부서의 부족을 지적하였다. 최근 경기경찰청 외사과 인력의 변화추이는 증가하는 외국인범죄에 대한 소극적 자세임을 지적하였고 이를 위해 국제범죄수사대와 외국인 범죄전문 수사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외국인 범죄에 대한 전문수사 인력과 확보와 담당 경찰관의 질적 향상을 통해 효과적인 범죄 예방도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둘째로 경찰을 비롯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그리고 국정원등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범죄수사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리에도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를 위해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고 관련기관 간 협조체제를 의무적으로 하여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설협의체 신설을 주장하였다.

셋째 외국인 범죄자와 전과자에 대한 실제 거주지 및 거소 파악은 물론 동거자와 범죄경력에 대한 정보가 없어 사건 발생에서 드러나 단점을 지적하고 이를 위해 출입국 관리에 대한 변화를 제시하였다. 귀화자 경찰채용을 통한 효과적인 외국인 범죄 예방책을 제시하고 수사과정에서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귀화자 중의 경찰채용 등 지역사회 소속감 부여와 소통을 제시하였다.

장기적인 방안으로 우선 사회통합을 제시하였으며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를 위한 조기교육을 제시하였다. 하나의 외국인 강력사건으로 인해 외국인 혐오증상이 확산되고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 결국 시민들의 차가운 시선과 냉대는 이주노동자와 체류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하고 이러한 악순환은 다시 강력범죄발생이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앞으로 세계화 추세로 인한 외국인근로자의 유입의 가속화는 자명하므로 시대에 맞는 의식을 위해 조기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주민과 2세들에 대한 인식이 외국인인 아닌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조기교육을 통한 사회통합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효과를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사회 다문화 증진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을 주장하였다. 생존을 위한 근로와 노동뿐만 아니라 문화와 생활에서 지역사회 활동과 축제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외국인들에게도 우리사회의 이해와 지역주민과의 우호적 관계를 위한 기회부여 제공을 제시하였다. 또한 외국인에 대한 신상정보와 범죄경력 등 많은 정보를 데이터화 하는 방안을 주장하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출입국 관리시스템에 대한 변화를 제시하였다. 앞으로 점차 늘어날 국내 체류외국인과 기존의 거주자에 대한 지문등록 및 얼굴정보 입력 의무화, 실제거주지 및 동거자 정보 그리고 범죄경력 조회 의무화 등을 주요한 정보를 데이터화 하여 경찰과 관련기관의 공유하여 잠재적 상황에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출입국 관리 방법의 변화를 주장하였다.

2015년 10월 20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에 따르면 수원시 팔달구에 경찰서유치가 확정되어 내년에 예산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였다<sup>28)</sup>. 2019년 개정을 목표로 추진되는 팔달경찰서 신설은 우리 경찰의 노력과 지역구 국회의원의 노력이 잘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수원시민을 비롯한 국민들의 범죄예방과 외국인에 대한 시선의 변화가 함께 수반되기를 기대한다.

## References

- Kim, TaeMyeong(2007), *Foreigner Crimes and its Control in Japan*, the institute of police science, 2(2)
- Ministry of Justice, *Korea Immigration Service Monthly statistics*, 2014
- Statistics Korea, *Population projections Data*, 2014
- Ministry of Justice, *Statistical Yearbook of Immigration*, p278
- National Police Agency, *2012 White Paper*.
- National Police Agency, *Internal Resources*
- Policy debate data: *Developing a safe Suwon city*, 2015. 1. 23.
- Sbs New <http://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6689>
- The Kyeongin Ilbo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51020010007249>
- The Herald Business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819000414&md=20140822005930\\_BL](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819000414&md=20140822005930_BL)
- Hong, E. S., Kim, T. H. (2008), "Private and Public Securities' Mutual Cooperation Plans to Deal with Crimes Threatening the Livelihood of the Peopl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Vol. 4, No 1, pp. 154-174

28) 경인일보, 2015년 10월 21일(<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51020010007249>)